

전승관 불사 회향에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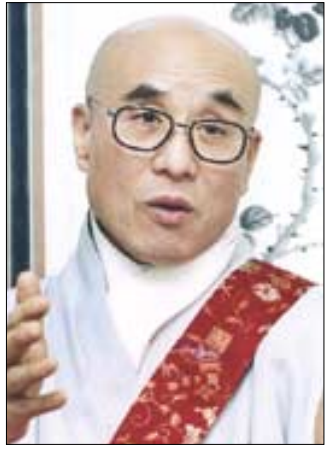
승려 연수 상설화 · 신도들의 종단사업 참여 확대

태고종 새해계획 발표

태고종이 전승관 불사 회향과 승려 연수교육 상설화, 신도조직 재정비를 2006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은 1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태고종은 올해 △기반조성사업 △전인교육사업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위상강화사업 등 5대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5대 분야 사업 취지에 맞게 전승관 불사회향, 총무원 · 사찰간 행정인프라 구축, 전국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등 22개 중점 사업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중 태고종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불사다. 운산 스님은 "올해 태고종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은 전승관 회향 불사"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5월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60억원 정도의 불사금 모금을 위해 중단의 부장 스님들과 전국 지방 총무원을 순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량을 갖춘 힘있는 종단 건설"



을 신년 운영 지표로 내걸고 있는 태고종은 특히 올해를 교육 불사의 해로 정했다. 이와관련 그동안 1년에 한번씩 선암사에서 열리는 승려 연수교육을 상설화시킬 방침이다. 운산 스님은 "5월 이후부터는 연수교육의 성격에 따라 지방 사찰을 활용해 거의 매일 연수교육을 마련하겠다"며 "내년에는 상설연수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태고종 상설 연수교육을 득도 기수별이나 스님들의 품계별로 근기에 맞게

차별화시킬 방침이다. 태고종은 신도조직 정비에도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1975년 구성된 태고종 전국신도회는 제반여건 미숙으로 사실상 그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신도회가 종단을 구성하는 한축으로 종단 운영과 사업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신도회 정관 등을 재정비해 지방교구 신도회와 중앙의 전국신도회를 상향식으로 운영한다. 운산 스님은 "현재 종단에 등록된 3천여개의 사찰에서 각 사찰당 활동할 수 있는 신도 10여명 정도를 추천받을 예정"이라며 "3만~4만명 정도 되는 정예신도들을 종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번달 안으로 8백여페이지에 달하는 <태고종사>를 발간한다. 또 3월에는 '가람 건설 주시회사'를 설립해 수익사업 창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6월중으로 통합 전산화 시스템을 완료해 행정 인프라를 구성할 계획이며, 8월에는 각종 종단자료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해 국제기관에 보급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조계종 법률자문단 위촉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월 20일 전 검찰총장 김종빈 변호사 등 13명을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조계종은 종헌 · 종법에 따른 적법한 총무원장 강화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통해 종단의 안정을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법률자문단은 각종 위원회(불사심의위원회, 환경위원회, 생명윤리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 한국-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 미디어위원회 등)에 참여해 각종 위원회 업무의 적법성과 분쟁의 사전예방활동을 벌인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교구본사와 협의를 통해 교구본사별로도 자문 변호사를 두도록 하고 적법한 총무원장과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도들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용수기자

종단협 신년하례회 "화합과 상생의 불국토 구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가 병설된 신년하례회를 봉행하고 화합과 상생의 불국토 구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주요 종단 수장과 정관계 인사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시대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눈물과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교육원장 청화 스님. 유철주 기자

가르침에 따라 이 시대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눈물과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교육원장 청화 스님. 유철주 기자



군법당 없어진다니 쩡 하네요



"법당이 없어진다고 하니 마음이 쩡하네요. 많은 병사들이 군생활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곳인데, 다시 돌아왔을때도 활짝 웃는 부처님의 얼굴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전진부대 돌격대대 호국 총절사 운상철 군중병의 마음은 무겁지만 하다. 올 3월 군 병영개신 현대화

사업으로 내부반을 개조한 법당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1월 15일 오전 10시 돌격대대 불자 장병들이 하나둘씩 수계법회를 봉행하기 위해 호국 총절사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는 장병들의 얼굴은 밝지 않다. 3월부터 부대 막사가 헐리면 8개월간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 전방으로 가야한다는 부담감

도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법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서서다.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장병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부대 법당에서 법회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염



오는 3월 헐리게 될 호국 총절사. '마지막 수계법회' 돌격대대 불자 장병들은 1월 15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왼쪽).

호쾌하지 대표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5월 부대에 배치되어 매주 법회에 나왔다는 김영진 일병은 연비를 받고 부처님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부처님! 부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꼭 부처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수계법회에서 오계를 수지한 장병들은 모두 64명. 연비를 받고

파주 전진부대 돌격대대 호국 총절사 병영개신 현대화사업으로 사라질 위기

원이 들어 있었다. 증명법사로 수계법회에 참석한 평화 통일사 윤일 스님은 법문 앞머리에서 "30년전 불자들이 실시 일반적으로 보시해 만들어진 법당이 호국 총절사"라며 "뜻있는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법당이 다시 지어질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군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조동종 규장부장 법화 스님(여주 행운정사 주지)을 비롯해 연안 · 청봉 · 청담 스님과 전진부대 서용수 참모장, 서창욱 돌격대대장, 강정기 청

부처님의 참 제자가 되고자하는 눈빛이 초롱하듯만 하다. 이원희 사단 군법사는 법회관계로 수계법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일일이 법명과 수계절을 만들어 이날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이기승 돌격대대 주임원사는 "매주 법당을 찾은 70여명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꼭 법당을 다시 지어야겠다고 부처님 앞에 발원하게 된다"며 "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불자들과 사찰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글 · 사진/파주=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고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중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남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중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비추는 최고의 명당

2006년 7월은 120년 만에 찾아오는 윤달로서, 조상님들의 이장 및 장례에 대한 대·소사를 무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공인된 종교단체인 사찰에 명당 중의 명당터를 선정하여 부처님의 품안에 봉안함을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을 부처님의 품안에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봉안탑 ·1,080분의 지장보살님 ·3,330분의 아미타부처님

공인된 종교단체의 안정된 관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손들이 조상의 선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정되고 공인된 종교단체에 모시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지리가 너무 좋은 곳으로 조거침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니 서두르세요.

"연화지" 지형의 응의 승천형

풍수지리학상 "연화지"로서 주변의 신세가 엮꽃 모양을 하고 있으며, 좌청룡우백호 형태와 그 아래로 계곡물이 흐르고, 곧게 뻗어 내린 능선은 응의 승천형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천하의 명당 자리로 조상님의 위패나 봉안함을 모시는 가정은 천대의 재물복과 만인지하의 영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경기, 오산, 용인지역

서둘버스 수시운영



뉴그린 / NEW GREEN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2층 (선릉역 5번 출구 옆)

접수상담 02) 527-7555